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니 당연히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목회자 세미나 개최

필리핀 기독교단체인 올 크리에이션 글로벌 네트워크(회장 그렉 두란때) 주최로 열린 마닐라 시 소재 마카티 시티 목회자 세미나 소식 등 국내외 소식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성결 복음

치유와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카자흐스탄 로젤 마하타예바 목사님과 성도들, 중동지역에 당회장님 저서 출판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레바논 아나니아 카스타니안 목사 간증

대전만민교회 '일 축복 성회'

지난 6월 30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치료와 축복, 응답이 넘쳐났던 '이재록 목사 초청 대전만민교회 1일 축복 성회' 현장을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438호 2010년 7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주제로 열린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만민중앙교회 제3의 도약기를 맞아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 비발디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둘째 날, 3,700여 명의 일꾼들이 몰려 세 곳의 소강당에서 스크린을 통해 동시에 진행했다.



의 소강당을 가득 메운 일꾼 및 성도들에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이번 교육은 가나안 성전(여섯 번째 성전)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중요한 교육”임을 강조하고, “자기 보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참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참마음을 이루면 온전한 믿음이 오며 이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전제했다.

이어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선한 마음을 이뤄야 하는데, 먼저 자신을 진리에 비취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 변개함이 없는 큰마음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상대를 믿고 신뢰하는 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서를 좇고 ‘사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며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릴 것”을 일꾼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죄악과 비진리를 철저히 버려 참마음을 신속히 이룸으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첫날 오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이 인도한 ‘성령충만기도회’를 통해서 교육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과 내 성격의 틀 속에서 상대를 힘들게 했던 것 등을 회개했다.

둘째 날 오전 이희진 목사는

“우리가 가나안성전, 대성전 시대에 귀히 쓰임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달려 갈 것”을 전했다. 오후시간에는 이수진 목사가 지교회 일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지직받거나 내 생각과 다를 때, 또는 상대의 실수

나 죄에 대해 가지는 불편한 마음들을 버려 선한 일꾼이 될 것”을 당부했다.

여구역장 총연합회장 차난영 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개척예배

태국 치앙라이 시에 소재한 치앙라이만민교회가 지난 6월 27일, 어린이를 포함한 성도 13명이 모인 가운데 개척예배를 드렸다. 담임 이재원 선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고, 예배 후에는 하늘에 뜬 선명한 쌍무지개를 보며 앞으로 치앙라이만민교회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은 이달 초에 발간된 태국어판 「만민뉴스」 1호를 활용해 전도에 힘쓰고 있다. 이재원 선교사는 태국 북부지역 고산족은 물론 인접한 미얀마와 라오스 북음화를 위해 활발한 선교사역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소재 대명콘도 비발디파크에서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이 진행됐다.

우리 교회 제3의 도약기를 맞아 각 교구에서 교회 부흥에 힘쓰고 있는 지역장·조장·구역장이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주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7월 5일과 6일 저녁, 다이아몬드 홀(대강당)을 비롯해 세 곳



당회장 이재록 목사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5~7)

영적으로 '어둠'이란 한마디로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곧 진리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 불의, 불법, 악이다 어둠이지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영적으로 어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이란 어둠 곧 비진리, 죄와 반대되는 진리, 선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바로 빛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1.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가지려면

요한일서 1:5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빛과 어둠 중 과연 어디에 더 많이 속해 있습니까? 절반은 빛 가운데, 절반은 어둠 가운데, 아니면 70%는 빛 가운데, 30%는 어둠 가운데, 90%는 빛 가운데, 10%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단 1%도 없으신 100%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처럼 100%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의 주관자는 그것을 빌미로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주관자란, 원수 마귀 사단을 가리키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어둠 가운데 살면 원수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습니다. 영계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사귀어 갖듯이 하나님도 믿음의 자녀들과 그렇게 되길 바라시지요.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사귀어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7에 ‘저가 (곧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다’ 했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귀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환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 스위치를 내려서 전등을 모두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어둠이 찾아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다시 전등을 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순간에 사라지지요. 빛이 임하니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빛이 있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권세가 결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에 있을 때 찾아왔던 질병과 가난 등 갖가지 문제들이 떠납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에게도 빛의 권세가 따릅니다. 영적인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도 커지지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수록 영적인 빛이 더 강해집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도 커집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영적인 어둠에 속하게 되지요. 자

기 자신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된 증거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가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재앙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시험, 환난도 물러가라” 하면 그대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18에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니 당연히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삼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어둠을 다 벗어 버리고 더욱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며 마음껏 축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신

필리핀 마닐라에서 목회자 세미나 개최



회장 그렉 두란데 목사

필리핀 기독교단체인 올 크리에이션 글로벌 네트워크(회장 그렉 두란데 목사) 주최로 마닐라 시 소재 마카티 시티에서 지난 7월 1일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강사로 선 셀소 산호세 목사(마스터 신학교 총장)는 만민의 선교 사역에 대해, 조찬형 목사(까비떼 만민교회 담임)는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부회장 로버트 네리(필리핀 비숍 총회 회장) 목사와 그렉 두란데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권능의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단기선교’로 선교 비전 구체화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간 부원장 노정욱 목사의 인솔로 제3회 일본 단기선교를 가졌다. 훈련생이 훈련일체가 되어 이다, 나고야, 마츠모토, 오오마티, 도미 지역 등에서 집회를 열어 설교 및 공연과 간증, 손수건 기도로 복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일, 이다 시 인형극장에서 열린 ‘한일 전통 공연 여름 콘서트’에 이다 만민교회 공연팀과 함께 출연했다.

미국 브룩클린에 만민교회 개척

지난 7월 4일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가 미국 동부 뉴욕 브룩클린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를 개척하여 뉴욕 주변 러시아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 임상영양학·대체의학 박사인 그는 2006년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에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뒤, 2009년 5월 선교사로 파송되어 손수건 집회(행 19:11-12)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해 왔다.

김향열 선교사 파송식

우리 교회는 7월 4일, 주일 저녁예배 때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파송되는 김향열 선교사는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선교 비전을 키워왔다. 그 후 이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하고자 선교사를 자원했다. 그는 앞으로 미서부·캘리포니아 주(약 3천 8백만 인구, 한인 100만여 명과 다문화 민족이 거주)에서 선교사역을 펼친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카·자·흐·스·탄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성결 복음

로젤 마하타예바 목사 (알마티 영의 길 교회)



제가 시무하는 교회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으며, 바이카누르와 카라간다 등의 도시에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젠저런 많은 일들을 겪은 저는 영적으로 이끌어 줄 진정한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이스라엘의 다니엘 로젠 목사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권능' CD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상의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고 저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그 CD를 복사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재록 목사님은 제가 그토록 찾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웠고, 제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니엘 로젠 목사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재록 목사님을 초청해 연합성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뭇 듯이 기뻐 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성회에서 펼쳐진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고

드디어 2009년 9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성도 9명이 참석했지요. 바로 그날 저희는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성회 시작 전에 펼쳐진 공연팀의 충만한 찬양과 무용은 천국을 연상케 했고, 이어지는 강사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증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권능의 현장을 목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회에 직접 참석한 성도뿐 아니라 TBN 러시아 TV를 시청한 성도들도 많이 치료되었습니다.

마라트 형제(20세)는 어렸을 때 크게 다친 등과 척추 통증을 치료받았고, 쿤술루 성도(63세)는 가족사진에 기도를 받았는데 다운증후군 증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던 세 살 난 손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카말 집사(56세)는 고질적인 골반 뼈 통증을 치료받아 춤도 추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난 종양으로 고통받던 카라간다 시 지교회 비비굴 목사(47세)는 의사가 이스라엘 가는 것을 만류하고 수술을 권했지만 성회에 참석해 기도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고, 본국으로 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치료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책자와 방송, 인터넷 등 성결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응답이 넘쳐

저는 사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재록 목사님 저서들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양식 삼으니 희열이 넘쳤지요.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서들이 부족해 복사본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 로젠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소포로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저서들을 읽고 또 읽었으며,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 치료와 물질 축복 등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mp3에 다운받아 듣고, mp3 플레이어를 일부 구입해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그 파일들을 복사해 듣게 했습니다.

그후 대부분의 성도들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타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 주었지요.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치료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알마티 천문관 축소의 고위급이며 학자인 아스카르 장로님은 심한 독감을 치료받았고, 타지키스탄에 사는 쿤술루 성도는 급성 장염으로 고통받던 중 환자 기도를 받고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 TBN 러시아 TV에 이재록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성도들은 서로 전화로 깨워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성결 복음을 통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스승으로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5월 말, 카자흐스탄 알마티 영의 길 교회 성도 일부가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비전 트립 훈련생들과 함께했다.

아와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종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언니 클라라 성도(61세)는 수년간 고통받던 입술 포진을 치료받았지요.

누르바누(40세) 성도는 이스라엘 성회를 TV로 시청하던 중 다리에 퍼진 푸른색 종양들을 치료받아 성회 장소에 휴대폰을 연결해 간증한 내용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TV를 시청하며 성회에 참석한 좌이파크 시의 마르잔 성도(22세)는 어릴 적부터 앓던 신장염을, 그녀의 남편 아이도스 성도(29세)는 오랫동안 고통받던 척추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딸 아이게림(4세)은 머리에 퍼진 피부병으로 진물과 함께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졌으나, 기도받은 후 단기간에 어떠한 의학적 처방 없이 치료받아 지금은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합니다. 그 외에도

레·바·논 “이재록 목사님 신앙서적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나니아 카스타니안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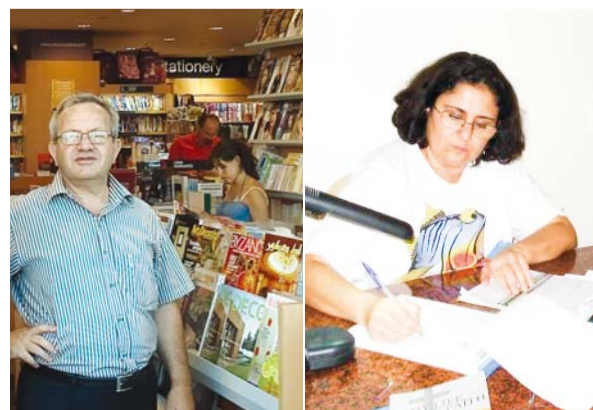


저는 최근 2년간 우림복과 협력하여 책자 번역과 보급, 신앙서적 발간 등 만민중앙교회 문서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2009년, 아들 아라가 기독교사역 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우림복에 근무하는 조셉 박(박정길)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 박 집사님은 아랍어판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레바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이에게 신앙서적을 공급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던 제게 우림복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레바논과 중동에서 큰 규모의 서점 중 하나인 안토인 서점은 레바논 전역 18곳에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들에는 아랍어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진열되어 있고, 안토인 온라인 서점(Antoineonline.com)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서적과 종교 및 정치서적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진 메가 스토어에서도 이재록 목사님 저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7개 지점이 있는 말릭스 서점과 살렘 야앗 기독교 서점에서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왈리드 빈 타랄 사우디 왕자와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의 집무실, 그리고 발라만드 대학교 총장 등 주변의 VIP들에게도 이 책을 전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그리고 이란어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저희 소망은 중동에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출판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 소니아는 이 목사님 저서를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하며 제 아들 아라는 온라인에서 성결 복음을 전파하며 문서 선교의 카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신앙서적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랍어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판매되고 있는 안토인 서점에서 (좌) 아르메니아어 번역에 힘쓰고 있는 아내 소니아 (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치유, 응답, 축복이 넘쳤다

이재록 목사 초청 대전만민교회 '일 축복 성회'



강사 이재록 목사가 안수기도하는 중(사진 오른쪽), 치유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하나씩 간증으로 영광드리기 위해 단에 올라와 줄을 섰다.

초대교회에 사도들로부터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행 2:43). 지난 6월 30일, 해외 곳곳에서 대형 연합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해 온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가 인도한 대전만민교회 '일 축복 성회' 현장을 소개한다.

오후 7시, 성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대형 버스 및 승용차들이 대전만민교회(담임 김태식 목사) 앞에 정차했다. 일시에 본당은 물론 교육관과 실외에 마련된 좌석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로 메워지기 시작했다.

정문 입구에 마련된 환자접수처도 분주해졌다. 이날 병명 상담은 우리 교회 누가의료선교회(이사, 간호사 등 전·현직 의료계 종사자들의 모임)에서 담당했다.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준비찬양이 시작됐다. 질병 치유와 기도 제목 응답, 축복을 사모하여 서울, 포항, 춘천, 밀양 등에서 모인 약 2,000명은 뜨겁게 찬양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할렐루야선교단과 금관 앙상블의 특송 후 강사 이재록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요일 1:5-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어두운 곳에 전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빛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권세가 따른다"고 전하며 이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 영육간에 모든 복을 받는다"고 선포했다.

이목사는 젊은 시절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러나 7년간 사투 끝에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시고,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소망의 빛을 전하는 권능의 목회자로 축복해 주셨다. 그 자신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환자 접수를 한 사람은 550여 명, 병명은 수백 가지가 넘었다. 설교 후 이목사는 접수된 병명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해 주었고, 가정과 일터, 사업터의 축복과 마음

의 소원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전체기도가 마쳐지고 다시 이목사의 안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 한쪽에서는 치유 사실을 확인하고 간증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본당 뒤편 간증접수처에는 기관지 확장증, 봉와직염, 위염, 난청, 전신기력증, 급성세균감염, 두통, 우울증, 어깨통증, 알레르기성 비염, 중이염, 요통, 당뇨, 만성기능항진증, 심장비대증, 비립종, 손목 결절종, 치질, 하복부 통증, 전신이 따끈거림 등 수많은 질병이 하나님 권능으로 치유됐다는 간증이 접수됐다.

그 가운데 이해양 성도(여, 48세, 서산만민교회)는 "한 달 전부터 목디스크로 고개를 숙여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팠다. 특히 목 왼쪽 부분은 통증이 더 심했다.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작정기도, 금식, 노방전도 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했다. 오늘 성회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고 몸살감기로 인한 어깨와 등 통증도 없어졌다"고 했다.

이정숙 권사(여, 51세, 포항만민교회)는 "열흘 전쯤 무거운 것을 들 어 올리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은 후 허리가 한결 나아졌지만 장시간 앉아있으면 통증이 밀려오곤 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받았는지 오늘 성회 내내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간증했다.

안향선 성도(여, 82세, 청주만민교회)는 "3년 전부터 우측 귀가 잘 안 들렸다. 3년 전 보청기를 착용 하려고 검사할 때 큰 종을 울릴 때

는 약간 들렸는데 작은 종으로 검사할 때는 안 들렸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도 있었다. 매일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했는데 오늘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귀에서 나는 소리도 사라지고 놀랍게도 우측 귀가 잘 들리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이날 처음 교회에 온 윤옥희 성도(여, 60세)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근육(연골)주사를 맞아 왔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오늘 강사님 기도를 받을 때 왼쪽 무릎이 후끈후끈 열기가 느껴지더니 일어나 걸어도 전혀 통증이 없고 가벼워졌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눈물로 간증했다.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교육관 및 성전 마당에 마련된 예배 장소에서 '일 축복 성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4, 010-4575-4194
- 사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벽성B/D 7층 ☎0518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새대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하동 37-1 ☎0428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령동 181 ☎0623372-1002, 010-3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852-98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평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집흥동 564-15 ☎0418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관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855, 016-215-0116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야동 1524-14 ☎055353-9192, 070-7583-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3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상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0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08-1 ☎0548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6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25-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군포지성전 인천시 서구 미전동 688-2 ☎032668-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이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6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0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갈매동 349-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00-2 ☎0321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